

野 저격수 배치 ... 황교안 '병역' 등 조준

우원식·김광진·박범계 등 6인 연합군 '철저 검증'

새누리는 장운석 위원장 등 든든한 '방패'로 맞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28일 완료됐다.

인사청문특별회에 따라 특위는 여당 7명(위원장 포함), 야당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예상대로 야당의 '참'과 여당의 '방패'는 강대강 진용으로 구축됐다. 여당에서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황교안 지킴이'로 대거 배치됐고, 야당에선 전투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저격수'들이 주로 자출됐다.

새누리당 조혜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3선인 장운석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권성동, 초선인 김제식·김희선·김중훈·김희국·염동열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여당 위원 7명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검사 출신이다. 여당측인 위원장에 내정된 장 의원은 황 후보자의 법조계 선배로,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을 지낸 때 황 후보자가 공안2부 수석검사로 근무했다. 간사를 맡은 권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권 의원은 앞서 자원의외국국정조사 특위 간사로도 활약하는 등 당내에서 '전천후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식·김희선 의원도 검찰 출신이다.

조 원내 수석부대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상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하려고 노력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전날 새정치연합 출신인 우원식·김광진·박범계·은수미·홍중학 의원

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6명으로 '연합군'을 구성했다. 간사는 재선인 우원식의 의원이 맡았다.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문제와 안보관 검증, 법조계 출신 박범계 의원은 '공안통치' 의혹 분석을,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과 기재위 소속 홍중학 의원은 환경노동과 경제활성화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대책 점검을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이 분담됐다는 후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출하고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9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길에 오르는 1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벌써 부적격' 주장까지 거론하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비르고 있어 새누리당 계획대로 국회 임명동의의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특위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검증체제를 가동했다.

특히 황 후보자가 이전 총리 후보자에서도 논란이 됐던 각종 문제가 있다며 결코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처럼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딸에 대한 증여와 관련, "장녀가 결혼을 앞둔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확인서를 써줬다"며 "후보자 재산이 사위에게 흘러들어간 셈인데 결과적으로 450만원을 편법 절세한 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위에게 직접 증명했으면 세금이 900만원인데 이를 딸에게 증여한 뒤 사위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세금 절반을 아꼈다는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광주시의회는 28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올 들어 5번째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지난 4월 전국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한 바 있지만, 이번 의장 협의회에서 다시 촉구했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기념식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 구축지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상호 간의 정보 교류와 지방의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을 돌며 매달 열린다.

오는 7월 협의회는 광주시의회가 주관해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당 조직개편 단행

상설위원회 신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최근 상설위원회 신설 등 시당 조직개편과 함께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상임고문에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 8명, 고문에는 신이섭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8명이 각각 위촉됐다. 부위원장에는 이영욱 전 새마을협의회회장 등 8명이 임명됐다.

신설한 상설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에는 문상필 광주시의원이 임명된 것을 비롯해 교육특별위원회에 김옥환 남부대학교수, 청년일자리를특별위원회에 박홍순 전 민주당 청년국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 황미순 고구려대 교수가 임명됐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 손중호 양동복개사가 대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에 정주영 전 사단법인 나눔센터 원장이 선임됐다.

시당 당직자는 대변인에 김보현 광주시의원, 부대변인에 정순애·오광록 서구위원과 김정자 전 광주시당 여성국장 등 6명이 임명됐다.

사무처 총무국장에는 최중하씨, 정책실장에 설정환씨, 홍보국장에는 정봉준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맡았다. 민원실장에 박순우씨, 민원국장 황남주씨, 대외협력국장에 이상준씨가 임명됐으며 배순선 조직국장과 이세하 총무간사는 연임됐다.

박해자 광주시당 위원장은 "주요 당직자는 당직자 공모에 신청한 당원과 각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당원과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탄저균 오산기지로 배송

美, 한국정부에 숨졌다

정부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 미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은 27일 외교부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 우리 정부에 피해 현황과 관련 조치사항,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알려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주한미군 측은 사고원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측은 민간업자를 통해 오산기지로 배송된 탄저균이 비활성화된 실험(훈련)용 표본으로 인식하고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용 표본은 27일 이전에 오산기지로 배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약용 정신 계승 '목민관 포럼'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28~29일 여수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첫날 민선6기 자치단체장 24명과 참가도시 재생업무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엠블호텔에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장~광주 문화전당~무주 태권도원 관광벨트화

광주·전남·전북 상생발전 관광활성화·인사교류 추진

광주와 전남·북이 호남권 상생을 위해 관광벨트 구축과 시·도간 인사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29일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 회의를 갖고 여수세계박람회장~광주 아시아문화전당~무

주 태권도원 등 3개 시·도의 대표 관광지를 관광벨트화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서 10명씩 30명이 참여하는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달 창립총회를 갖고 국·내외 공동 홍보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3개 시·도는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그동안 호남권 시·도 실무자회의와 회장단 회의를 열고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의 규약안을 마련했으며, 중국 국제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해외 관광관련 지사 및 사무소 공동 운영 등 호남권 공동사업 14건도 발굴했다.

호남권 시·도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시·도별 5급 1명을 1년 단위로 광주는 전

남에, 전남은 전북에, 전북은 광주에 각각 교환근무 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이날 ▲서해안(군산~목포) 철도건설 공동 대응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 협력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 설립 ▲광주 영어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 ▲전북119 안전체험관 체험 ▲전주세계소리축제 ▲2015 국제농업박람회 ▲2015 국제디자인 총회 ▲태권도원 연계 국제대회 등 호남권 협력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 과제 합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메르스 검사 시약 확보

지역서도 직접 진단검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 시약이 광주에 배분돼 지역에서 직접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검사 시약 45 키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7일 의심 신고 환자의 검체를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고 나서 시약을 받아왔다. 이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약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 환자의 검체를 들고 이동하는

불편 없이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일원화하고 있어 별도의 지침이 있기까지는 의심 환자의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전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광주 외 다른 지역에 도시약을 배분할 예정이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능력이 있어 만일에 대비해 검사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00 관공서, 기업체 설치 전문

홍보와 매출의 신장을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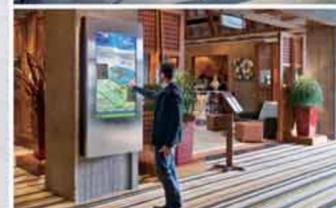
맞춤형 디스플레이 & 콘텐츠 솔루션 전문업체

[설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설치 완료 후 업체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실시간 모니터링 |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보유 |
DID 솔루션 체계적 관리 | 정기적인 현장 방문 | 전문 A/S 인력 보유

설치문의 062-513-8668 | 서보람 과장 010-6373-8685 500-83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56-4번지 2층

20000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기술력 축적,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

진취적인 도전자세로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최상의 비즈니스파트너



주왕종합건설 주식회사

JUWANG CONSTRUCTION CORP.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127번지
Tel. (062)944-3900
Fax. (062)944-3901

